

가축 사료 원료 2,470건 추가 반영·원료 활용 범위 확대

- 10년 만에 목록 개정, 사료 원료 활용 절차 대폭 간소화
- 목록 포함 원료는 별도 심의 없이 사용 가능
- 사료업계 개발 부담 완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원료 1,630건, 동물성 원료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일부 제약이 따랐다.

일례로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 등 식품공전에는 등재됐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 약 3~4개월이 걸려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 업체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료 수급 상황에 따라 대체 원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이번 사료 원료 목록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추가된 사료 원료 목록

붙임2. 축산원 누리집 확인 방법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담당자	연구사	박설화 (063-238-745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1

추가된 사료 원료 목록(일부)

□ 식물성 주요 원료

대분류	소분류	품목	사료종류
곡류	-	아마란스(씨) 등	단미-곡류
서류	-	마카, 야콘	단미-서류
견과 종실류	음료 및 감미 종실류	결명자, 과라나, 헛개(열매)	단미-견과 · 종실류
과일류	인과류	비파	단미- 과실류
	감귤류	자몽	
	장과류	꾸지뽕(열매), 다래, 마가목(열매),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 엘더베리	
	열대 과일류	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아사이팜, 아세로라, 용과, 용안, 코코넛, 포포나무(열매)	
채소류	엽채류	라디치오, 루꼴라/로케트, 민들레, 배암차즈기/곰보배추, 비트(잎), 뽕(잎), 산마늘/명이나물(잎), 쑥부쟁이(섬쑥부쟁이/부지쟁이나물 포함), 순무유채, 신선초	단미-채소류

□ 동물성 주요 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사료종류
수산물	무척추 동물	갑각류	크릴, 꽃게, 꽃새우, 남극크릴, 납작게, 갈색보리새우, 갯가재, 거북손, 게레치, 게르치, 곤쟁이, 곧은뿔중하, 광둥줄새우, 그라비 새우	단미- 동물성 단백질류
		연체류	꼼치, 낙지, 날개오징어, 남방주꾸미, 납작소라, 갈색볼룩새조개, 갑오징어, 강남상어, 개랑조개, 개불, 개조개, 갯고둥, 거미고둥, 검정비틀이고둥	

붙임2

축산원 누리집 확인 방법

1.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접속 (www.nias.go.kr)



2. 하단 [축산정보서비스] → [한국사료성분 정보] 클릭
축산정보서비스



3. 공지사항 조회

